패션브랜드 영화와 만나다

메트로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제3071호 www.metroseoul.co.kr

골라 듣고 보는 '뮤직드라마'

삼성맨 꿈꾸는 9만여명 직무적성검사(SSAT) 인파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국사대부고에서 치러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시험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과 미국 뉴어크·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3개 지역에서 9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시스

e스포츠 열기 가을을 달군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 8강전이 열린 부산 벡스코는 지난 3일부터 나흘동안 1만명이 몰렸다. 일부 팬은 한정 아이템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기념품 가게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11일과 12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4강전이 열린 가운데 19일 결승전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지난 4일 삼성동 곰eXP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4 핫식스 GSL 시즌 3' 결승전. '스타크래프트 II' 경기를 보러 온 500여명의 국내외 e스포츠 팬으로 경기장이 북적였다. 덴마크에서 온 크리스티안 에버센(23)씨는 "해외에서 고석현·조성환 선수 등 '스타크래프트 II' 한국인 플레이어의 인기가 높다"며 "e스포츠는 외국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나흘 동안 1만여명 몰려 아이템 구매 줄서기 까지 19일 결승전 3만명 예상

짙어져 가는 가을만큼 국내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e스포츠 행사가 계절을 더욱 물들이고 있다.

가을은 게임 업계가 한해의 최고 승부사를 가리는 정규 리그 성수기다.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의 높은 경기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덕택에 전세계 e스포츠 팬의 관심이 단풍잎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 최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이다. 이 게임은 10월 둘째주 기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40%로 115주 연속 PC방 게임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팬의 높은 호응 덕에 올해 세계 대회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치했다.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 따르면 LoL 세계 대회 예선전 방송의 최고 동시 시청자 수와 누적 시청자 수는 전 시즌 대비 각각 49%, 141%가량 증가했다. 인기방송의 하루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7만5000명, 전체 누적 시청자 수는 430만명을 기록할 정도다. 8강전 동시 시청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67% 증가했다.

한중 대결로 펼쳐지는 결승전은 19일 열린다. 결승전은 세계적인 록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의 발판 공연으로 시작한다. 결승전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예상 수용인원은 3만 여명으로 지난해 개최지 미국 스테이플스센터의 관중 1만1000명 기록을 훌쩍이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정규 리그를 진행하며 올가을 e스포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 의 하반기 대회를 18일 개막한다. 본선 경기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국내 게임의 세계적 인기를 증명하듯 한국과 중국 대표선수가 맞붙는 '한·중 최강자전' 경기도 병행된다. 중국 대표선수 4명은 블레이드&소울 현지 파트너사이자 세계적인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주최한 대회에서 선발돼 주목을 모았다. 양 대회의 총 상금은 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넥슨은 1인칭 총격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의 정규 리그 '더 챌린지 시즌2'를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 넥슨은 국내 기업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를 개관한 바 있다.

곰eXP는 최근 스타크래프트II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의 한국지역 경기를 성황리 마쳤다. 곰eXP는 해외팬을 위해 최근 프랑스어 게임 중계를 추가했다.

오주양 곰eXP 상무는 "e스포츠 소재인 인기 게임은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며 "e스포츠는 언어 장벽이 낮고 시공간 제약이 없어 실시간으로 전세계 팬이 동시에 열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점이 매력"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평균수령 32만원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그쳐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월 32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도 사이, 서울시내 구·시 이 수령액 격차가 많게는 약 20만원에 이르러 노후 생활 수준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6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51% 정도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지역 차이도 매우 컸다. 시·도 가운데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43만원)이었고 이어 서울(35만8000원), 경기(34만2000원), 인천(33만9000원), 부산(33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25만1000원)의 연금액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울산보다 18만원이나 적었다. 전북(26만2000원), 충남(27만3000원), 경북(29만원), 제주(29만원)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윤다혜기자 ydh@

더 완전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대피소 앞 구조물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북한군이 발사한 고사총 총탄 흔적이 남아 있다 /뉴시스

北 "고위급접촉 무산 위기"

대북전단 거듭 비난 "앞날은 남한 태도에 달려"

북한은 1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듭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도발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반공화국 도발(대북전단 살포)의 주모자는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괴뢰패당의 처사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접촉도 물거품으로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극악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며 "쌍방간에 엄중한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관계 개선은 말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최경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 충돌 본격화

국감 중반전 진입… 세월호 참사도 여야간 격전 예상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는 해양경찰청과 감사원, 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집중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당시 문제점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은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총 4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필두로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서민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지방세와 담뱃세 등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채우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옐런 의장과 대화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미국 워싱턴 IMF본부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기념 촬영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북한과 관련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해경에 '무자비한 폭력' 중국 선원 3명 구속영장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다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이 지휘한 어선 선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선원 우씨(29)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8시 11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해 압송 중인 중국어선 오른쪽에 계류한 뒤 어선으로 올라와 윤모 순경 등 검색대원의 목을 조르면서 헬멧을 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해경 대원 5명이 부상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된 이들 외에도 나머지 선원 16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뉴스&뉴스

김무성 오늘 중국 방문 – 시진핑 면담 추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대표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방중하는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 대화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추진중이며,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는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정은 건강하고 안정적"

●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를 방문한 정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동포와 지상사 대표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북한 정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요즘 북한 관련 뉴스에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고 설명한 뒤 "통일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충립 "노태우 미움받아 강제 전역" 패소

● 1979년 12.12 사태 때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지냈던 김충립씨가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미움을 받아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요에 의해 전역서를 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노 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300만원 이상 연금 공무원 2년 만에 2만명↑

퇴직 공무원들 10명 중 2명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고 있으며, 그 대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7만5036명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33만8450명 중 22.2%를 차지, 1년 8개월 만에 1만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6582명 중 18.4%인 5만6205명이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43.2%에서 37.9%로 감소했으며,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지난 2년간 6.5~6.6%를 유지했다. /서양후기자 cyclone@

"한미, 사드 배치 논의한 적 없어"

안호영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드가 효과적인 무기체계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안 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의미있는 무기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은 "미국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가 없었다"며 "사드 구매에 대해서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휴대전화 사용>

온종일 '폰질'하다 허리 "악!"

잘못된 자세로 디스크 환자 5년새 20% 증가

스마트폰·태블릿PC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잘못된 자세로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로 목과 허리에 발생하는 디스크 환자가 2009년에 224만명에서 지난해 271만명으로 최근 5년사이 약 47만명(20.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스크 진료인원을 성별로 따지면 2013년 기준 여성 155만7000명, 남성 114만8000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또한 목디스크 환자는 같은 기간 29.7% 증가했고 허리디스크는 18.4% 늘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목디스크 진료인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 12.2%로 가장 높았다"며 "이는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실제로 이동 중의 IT기기 사용은 목에 무리를 준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디스크는 척추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조직(추간판)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밖으로 밀려나오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평원은 "목을 보호하려면 이동 중 IT기기 내려다보지 말고 컴퓨터 모니터 바로 봐야하며 허리는 의자에 바르게 앉고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현기자 spe@metroseoul.co.kr

해녀상 덮치는 거친 파도 12일 오후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의 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시 한림 신창포에서 방파제를 넘은 파도가 해녀상을 덮치고 있다. 태풍의 영향권이 넓어 남해·동해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44년만에 개방된 서울역 고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서울역 고가도로 시민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다. 1970년에 준공돼 지금껏 통행만 허용됐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44년만으로 이날 낮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역 고가를 보행자를 위한 '공중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시민들과 뜻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노인 노린 건강식품 '떴다방' 잡혔다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15배 이상 폭리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노인과 성장범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4월 말 사이 강남구 대치동과 도봉구 창동, 인천, 의정부 등지에서 피해자 660여 명에게 자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68만원에 팔아치워 6억1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유통기한(2년)이 지난 제품 28상자를 포장만 바꿔 유통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어르신 '떴다방'을 차려놓고 무료식사와 농장관광 등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건강보조식품을 원가의 15~17배 가격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유족에 2400만원 지급 판결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폭행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다혜기자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 불법운영 3명 입건

건설이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안전시설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며 4억2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장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안산스피드웨이는 2009년 안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그해 말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채권단 대표인 장씨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이곳에 한 행사 대행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 경주 동호회로부터 회당 400만~600만원을 받으며 자동차 관련 행사나 경주를 열었다. /윤다혜기자

"혁명 수단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냐"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펼친 노동운동이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활동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이 민주혁명 혁명 등에 있었다"며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췄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85년 대우전자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신씨는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범민련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가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지만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에 대해서는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다혜기자

금품수수·성폭행 교사, 교감 승진 못해

앞으로 금품 향응 수수, 성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되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수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세계한인회장단, 장학재단에 2500만원 기탁

한국장학재단은 7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로부터 25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 받았다.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장학기금은 올해로 5년째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이 국가인재육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재정확보 필요성에 공감해 매년 기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기부가 이뤄졌으며, 이 기부금은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장학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총 42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약 9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15년 1학기에는 5명을 추가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7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로부터 25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 받았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외모 단정하고 우유 맛있어야

metro Russia

'예쁜 젖소' 선발대회 눈길

Корова любят за крепкие ноги и лёгкую голову

최근 가을 축제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박람회장 전시장에서 열린 농업 박람회에서 러시아 최고의 젖소를 뽑는 '예쁜 젖소' 선발대회가 열렸다.

젖소를 구경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았다. 젖소 주인들은 회견과 나름 동으로 자신의 젖소가 돋보일 수 있도록 꾸미느라 분주했다.

라스트베트 농장의 마리아와 나데즈다는 "우리 젖소가 1등을 할 것"이라며 "모두 순종이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네기리 농장의 '마리나'는 "우리 젖소야 말로 왕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며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젖소가 매우 튼튼하고 우유의 품질도 우수하다"고 자랑했다. 이어 "젖소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며 "젖소의 울음소리나 몸짓을 보면 기분 상태나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우유 생산량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예쁜 젖소 선발대회의 심사 기준은 미인 대회의 기준에 맞먹을 정도로 까다롭다. 단정한 외모는 물론 젖소가 생산하는 우유의 품질과 양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류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3D로 보는 미래 내 얼굴은?

metro France

20년, 30년 후 내 모습을 미리 보는건 모두가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다. 프랑스에서 미래의 내 얼굴을 3D로 보여주는 이색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랑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젊3'라는 기술을 이용해 미래 얼굴을 가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해선 사진 촬영이 필수다. 촬영은 스튜디오에 마련된 컴퓨터를 통해 3D로 진행된다. 웹캠이 내장된 노트북을 이용해서도 촬영이 가능하며 작업이 끝난 후엔 미래의 내 얼굴이 아바타로 완성된다.

만들어진 아바타는 눈, 코, 입이 움직이고 사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높은 편이다.

/루스탄 코나트 기자·정리=원주리 번역기자

美 방역시스템 뚫렸다

전문의들 에볼라 감염 사망 병원 맹비난

미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이 에볼라 감염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한 미국 내 첫 환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살핀 전문가들이 이같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도 에볼라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는 주장이다.

AP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의 텍사스건강장로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 숨진 라이베리아 출신 에볼라 감염 환자 토머스 에릭 던컨이 처음으로 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이 남긴 기록을 입수해 10일 소개했다.

던컨은 미국 입국 엿새 후인 지난달 26일, 고열과 복통, 어지럼증 증세로 이 병원을 찾아 서아프리카에서 왔다며 에볼라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나 해열제인 타이레놀과 항생제만 처방받고 귀가했다.

던컨의 체온은 당시 39.4℃로 에볼라 감염이 의심됐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의들은 "핵심을 놓쳤다", "엄청난 무능"이라며 개탄했다.

특히 유가족은 던컨이 흑인이고 비보험자인 탓에 불평등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1400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던컨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병원의 책임 유무를 따질 참이다.

/김학철기자 kimlee@metroseoul.co.kr

94세 비행곡예사 '윙 워킹'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영국인 톰 래커기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94세인 래커는 세계 최고령 곡예 비행사다. /AP연합뉴스

홍콩경찰 '시민 해커' 11명 체포

정부 웹사이트 공격 혐의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11명이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붙잡혔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 사이버 수사팀은 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을 해킹공격한 혐의로 남성 8명, 여성 3명 등 1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54개 비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해킹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을 받은 정부기관 웹사이트 중에는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의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정부 기관에 대한 인터넷 공격을 선동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5년의 금고형과 100만 홍콩 달러(약 1억383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한편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는 홍콩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표하며 지난 10일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다.

/조선미기자

롯데월드몰,
사전 주차예약제 및
주차유료화를 시행합니다
롯데월드몰에서는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예약제와 주차유료화를 시행합니다
롯데월드몰 이용 및 물품 구매 시에도
무료주차 또는 주차요금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의 김훈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야기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임세혁 기자

임세혁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소속 기자는 낮에는 기자로 밤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평생 글쟁이로 살겠다는 신념을 드러낸 그는 지난해 장편소설 '샛별클럽의 천사들'을 출간한데 이어 로맨스 추리 소설도 내년 출간하기 위해 집필중이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낮에는 기자 밤에는 소설가… 이중생활

"정말 소설쓰는 기자가 돼 버렸네요."

케이블TV 방송사 티브로드에는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이 있다. 회사나 출입처에선 기자로, 출판사에선 작가로 이중생활을 하는 임세혁씨.

그는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소속 지역방송 기자로 활동하며 소설을 쓰고 있다. 낮에는 기사를 쓰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이중생활을 하는 그를 주위 사람들도 독특한 눈길로 바라본다.

임세혁씨의 장편소설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작가로써의 첫 작품이다. 지난해 세상에 처음 고개를 내민 이 책은 그의 서랍속에서 1년 만에 꺼내졌다.

"원래 꿈이 작가였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서 극작가 공부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 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동기들의 소식이 하나 둘 들리면서 막상 나는 꿈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임씨가 이번에 출간한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꿈을 새롭게 불잡기 위해 시작한 활동의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가졌던 작가라는 꿈을 하루 하루 짧게 써내려간 소설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다시금 자신감을 갖게 됐다.

"취미생활로 매일 써가면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다보니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욕심도 나더라. 이렇게 조금씩 써내려가며 장편소설로 완성됐고 서랍장에 고이 보관해 놓았었다."

어렇게 서랍장에 보관된 이 글이 세상에 나온 것은 출판사 공모전에서 비롯됐다. 그는 출판사 공모전에서 당당히 입상했고,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됐다.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임씨의 필력과 지역방송 기자 활동을 통한 경험이 더해져 완성된 작품이다. 실제 소설 속 배경이 된 성동구도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그의 취재 영역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임씨는 "지역방송 기자로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맡은 지역의 소식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며 "'샛별클럽의 천사들' 속 디테일한 내용들도 취재경험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현재 다음 작품도 준비 중이다. 다음 작품은 추리와 연애를 더한 내용이다.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과 추리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심리를 더했다.

"항상 기자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니 주말이면 회사에서 글을 씁니다. 토요일에는 밤 10시 회사에 가서 다음날 해를 보고 나올 정도죠. 부족한 시간을 쪼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꿈을 위해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롤모델로 소설가 김훈을 꼽았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소설가 김훈은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임씨는 "김훈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쉽고 간결하게 쓰다보니 글에 힘이 있어요. 기자로써 어떤 문장체를 지향하는 모습과 독자들에게 읽히게끔 쓰는 것이 맞물려 명작이 탄생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사실 임씨는 방송작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티브로드 지역방송 기자로 뛰어들게 됐다. 단순히 글을 쓰는게 좋았던 그는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었기에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기자와 작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작가가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라면 기자는 발로 쓰는 것이더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에게 전했다. 처음엔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내 기사를 보고 반응하는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새로운 기쁨을 얻었다."

다만 지역방송의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역방송을 흔히 지상파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역방송은 지상파가 못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항상 지역에 상주하며 세세한 소식을 다양한 형태로 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ly0403@metroseoul.co.kr

이주열 "정부와 경제시각차 거의 없어"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방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정부와 한은 시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기업심리 회복은 아직"이라며 "투자 쪽은 좀 더 회복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계속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 대해 "한 달 사이의 지표를 꼭 보고 금통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인하 논거와 동결 논거 모두 일리가 있고, 전망 수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은의 물가 전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등 매번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으로서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개혁이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새 물가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물가가 낮은 것은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충격이 컸다"며 "공급측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나빠 수요가 낮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진기자 alfeo1203@

현대重 전임원 사직서 제출

관리직 대폭 축소 등 고강도 개혁… 임금협상 미루는 노조 압박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과 위기극복을 위해 전 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고강도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사진) 사장은 12일 오전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뜻을 전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권오갑 사장은 이날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과 국내외 고객, 주주들을 생각해 분명한 개혁 청사진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혁 조치는 최근 새롭게 취임한 권 사장이 임단협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 교섭에 나오지 않자 더 이상 지체하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

현대중공업은 개혁작업을 통해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임원들은 재신임을 통해 중용하고, 임원인사를 조기 실시해 능력 있는 부장급을 조직의 리더로 발탁, 젊고 역동적으로 변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조직은 대폭 축소하고 생산과 영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우수인력을 생산과 영업으로 전진 배치시켜 회사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도 포함된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도 시작됐다. 사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제도개선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개선혁신팀을 신설해 전 사업본부의 공정 효율을 재점검하는 등 생산현장의 혁신작업에 들어갔다. /서도은기자 rudolph@

미방위, '단통법' 치열한 공방 예고

미래부·방통위 국감 '가계통신비 인하' 쟁점

과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실패한 법안일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를 위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박인식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CEO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부문장급이 대리 출석하기로 했다.

배경태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 단통법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데 대해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인지 각각 알지 못한 채 어떤 혜택을 받을 지 선택해야 한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요금도 비싸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국회 미방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통사 간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 규제의 전형인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이번 단통법과 관련한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자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현실화도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선 단통법 외에 ▲KT샛의 불법 위성매각 논란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 간 특허분쟁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 ▲광고총량제 허용 논란 ▲종편 재승인 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gq4930@metroseoul.co.kr

이재용·저커버그 회동 페이스북폰 나오나

페이스북폰은 갤럭시?

이재용(사진 왼쪽)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크 저커버그(오른쪽)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이 부회장은 14일 방한하는 저커버그와 양사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저커버그는 페이스북폰으로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폰은 말 그대로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에 최적화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의 모든 기능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곧바로 단말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드웨어 최강인 삼성전자가 페이스북의 파트너가 될 경우 양사가 윈윈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도 협업의 대상 중 하나다.

삼성이 실리콘밸리의 떠오르는 벤처기업 오큘러스 VR과 공동으로 제작한 기어VR은 갤럭시노트4에 장착해 사용하는 가상현실(VR) 기기다. /박상훈기자 zer4@

레고로 만나는 초대형 백화점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5개월간 제작한 대형 레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본관을 비롯한 청계천 일대를 초대형 레고작품으로 관람 수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밀크뮤직' 유료화 촉각

저작권 단체 무료서비스 반발 늘어나는 비용도 부담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이 유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서비스 정책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데다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밀크뮤직에 음원을 공급하는 소리바다와 한음저협은 지난 10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무료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료화 여부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밀크뮤직은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제휴를 맺고 지난달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라디오 스트리밍 형태의 음원 서비스다. 라디오 채널 '1990년대 음악', '걷기 좋은 날' 등의 주제에 맞춰 선별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국내 최대 규모인 340만곡의 음악을 로그인 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 하루만에 10만건, 1주일만에 40만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3월 출시된 미국에서도 6개월만에 4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사항에 '서비스 유료화'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소리바다와 삼성전자 측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만큼 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밀크뮤직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발생하는 12원의 음원 사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와 별개로 밀크뮤직의 무료 마케팅 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렵게 음원 유료 결제 시장을 구축해놨는데 밀크뮤직으로 인해 소비자 사이에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이 다시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음저협의 거센 비판에 삼성전자와 소리바다 측은 결국 서비스 유료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혁기자 h_sune0404@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코스닥
1940.92 (▼24.33)	555.05 (▼10.79)

금리	환율
2.29 (변동 없음)	1073.00 (▼1.00)

국감 단신

발전사, 전력난 속 2조 이익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지난해 발전회사들은 2조원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과 산하 6개 발전사, 57개 민자 발전사의 영업이익은 총 2조122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OECD 29개국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은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3년 1위(230.56 달러)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2위(246.40 달러), 2012년 2위(235.91 달러)에서 지난해 한단계 올라섰다.

고가폰(프리미엄폰) 공급가도 지난해 미국(505.38 달러)을 제치고 1위(512.24 달러)로 올라섰다. /이재영기자

정유사, 휘발유 비싸게 팔아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가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한국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장외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공급하고도 세액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최근 1년간 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4대 정유사가 판매한 휘발유의 평균 공급가격은 리터당 1774.4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송비를 더하면 4대 정유사의 휘발유는 장외보다 장내에서 오히려 리터당 2원가량 더 비싸게 팔렸다. /김태준기자

로또복권 제620회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8	13	30	35	40	2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4,612,129,3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5,073,308
3등	5개 숫자 일치	1,347,10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서교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주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15

갈길 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노사 "통합 먼저 vs 대화 먼저"…치킨게임 양상

Issue&View 국감서 해법 모색할까

/박지원기자 ally0033@metroseoul.co.kr

"노조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답답하지만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진정성 있는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 사측의 보여주기식 쇼잉(showing)은 진정한 대화제의로 볼 수 없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으로 촉발된 노사 양측의 갈등이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중 통합 승인 신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외환은행 노조와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하나·외환은행 직원들과 산책 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하나·외환은행 통합 법인은 11월 중 출범할 것"이라며 "외환 노조와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달중 금융당국에 통합 승인 신청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양 은행의 이사회가 두차례 연기됐음에도 통합 시너지를 낼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에 반해 외환 노조측은 조기통합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조기통합' 과제는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치킨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 갈등의 쟁점에는 사측의 무더기 징계가 걸려있다.

지난달 18일 외환은행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 관련 직원 898명을 징계심의키로 하면서 양측이 부르짖는 '대화'가 동상이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외환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온도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특히 두 번째 협의회가 끝난 직후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번과 같은 소모적인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17 합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노조의 엇갈린 해석도 생뚱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합의 당시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인 것.

한편 오는 15일과 16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또다른 해결책을 모색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심상정·이인영·김기준·박원석 의원 등 환노위와 정무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외환은행 불법부당 징계 중단 촉구서를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에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은행 사측이 조기 통합이라는 이유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사측의 명백한 탄압 행위로 관계당국이 불법부당징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양 행의 갈등 상황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해결책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두 은행의 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은행측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국감 이후에도 유지될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불청객 '쌀벌레' 없애려면…

전순이 주부 경제학

쌀통 안에 든 쌀벌레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란 적 한번쯤 있을 것이다. 쌀벌레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도 어김없이 엄습한다. 쌀벌레는 따뜻한 환경일수록 증식하기 쉬운데 가을과 겨울에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따뜻해져 여름철 못지않게 쌀벌레가 생기기 쉽다. 쌀벌레는 쌀의 주요 성분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배설물까지 분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쌀벌레의 경우 한마리가 200~1900개의 알을 산란할 정도로 번식력이 높다.

무엇보다 쌀을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쌀 양이 적으면 페트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쌀벌레를 막을 수 있다. 페트병은 깔끔하게 씻어 건조시킨 후 깔때기를 이용해 쌀을 담고, 뚜껑을 꼭 닫아 놓으면 쌀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밀폐용기에 쌀을 넣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15℃ 이하의 저온상태로 저장하면 보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쌀벌레를 없애는 방법으로 '마늘'도 활용된다. 쌀벌레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싫어한다. 쌀 10kg 기준으로 통마늘을 5~6개 정도 넣어주면 된다. 2개월 간격으로 통마늘을 갈아주면 쌀벌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으로 쌀벌레를 제거할 수 있다. 쌀을 보관하는 쌀독이나 쌀자루 안에 고추를 넣어두면, 쌀벌레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 쌀벌레는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쌀벌레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습기다. '숯'은 이런 습기를 조절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숯을 쌀 보관하는 곳 주변에 놓아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 쌀벌레를 없애는 데 유용하다. 베이킹소다 역시 습기를 조절해줘 쌀벌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가을에 쉽게 볼 수 있는 '은행잎'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길가에 떨어진 은행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망에 넣고 쌀을 보관하는 장소에 담아두면 쌀벌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밖에 쌀벌레는 겨자의 톡 쏘는 향을 싫어한다. 거즈에 겨자를 묻히고 한번 정도 묶은 다음 쌀을 보관하고 있는 곳 구석에 넣어둔다. 2개월 주기로 교체해 주면 된다.

마음을 씁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상품 안내 체계 개선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상품 안내체계 개선 KB국민카드는 상품 안내 메뉴와 카드 발급 프로세스 메뉴를 분리하는 등 홈페이지의 안내 체계를 고객 중심적으로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훈·민·정·음카드, 가온·누리카드 등 KB국민카드의 한글 브랜드 상품 전용관도 신설했다. /KB국민카드 제공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검사 착수

금감원·공정위 동시 조사… 해당 업체 초긴장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생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달중 일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회사별 보험규모와 민원 발생 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나눠 이번주중 검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작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빈발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두곳 뿐이다.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과 제기된 민원에 대한 중재노력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주가연계증권>

ELS "해외지수 쏠림현상… 손실 우려"

IMF, 거품 경고 "폭락시 원금 손해 유의"

저금리 기조에 재테크 대안상품으로 떠오른 주가연계증권(ELS)이 일부 해외지수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느 지수가 폭락할 경우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2일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발행된 총 1759건의 ELS 가운데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이 1076건(61%)에 달했다.

스텝다운형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종목의 주가가 발행일 기준으로 반토막 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 구조를 말한다.

국내지수 1개(코스피200)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스텝다운형 ELS가 이 기간 45건인 것과 비교하면 해외지수형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선호도를 드러낸다.

기초자산으로 삼는 해외지수 개수별로는 2개가 638종목으로 가장 많았고 3개(432종목), 1개(5종목), 4개(1종목) 순이었다. 여러 개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선민 KIS채권평가 연구원은 "코스피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 대안을 찾는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ELS로 몰렸다.

3분기에만 20조원이 넘는 ELS가 발행됐으며 이 중에서 지수형이 96.6%로 거의 모두를 차지했다. 수년간 박스권 장세에 갇힌 국내지수형보다 해외지수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지수 폭락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으면서 증시 거품론을 꺼내자 이같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개인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박스권 장세 속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3분기 원금비보전형 ELS 발행액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53%로 원금 전액보전형(24%)의 두 배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물론 증시 급락으로 인한 ELS 손실 우려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실제로 미 3대 지수인 S&P500 지수의 경우 털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7년 10월 이후와 비교하면 7년 만의 최고점이지만 닷컴버블이 터진 1999년과 비교하면 당시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지수 폭락보다는 리만브라더스나 동양사태에서처럼 ELS 발행 증권사나 헤지 운용사의 부도 위험이 더 큰 우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직장인 건강 함께 지켜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6월 21일부터 100일간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도심을 걸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카드업계 경종 울렸다

신한카드 사장 "DNA 버릴 각오로 변화 대응해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카드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12일 신한카드는 위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충청북도에서 열린 하반기 전사 대토론회에 참여해 "카드 유전자(DNA)를 버릴 각오로, 'Smart 금지융합 시장이 왔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 사장은 "최근 외부 환경은 단순히 '빠름'을 넘어 업(業)을 뒤흔들 무서운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카드사들 또한 더 이상 'Plate'에 국한되지 말고 필요하다면 20년 넘게 체득한 카드DNA까지 버릴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용기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며 리더들이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직접 구매과정을 체험해보고 신한카드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품검색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도의 마케팅 노하우를, 결제단계에서는 페이팔 등 결제방식의 경쟁구도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 사장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서인 '오자병법'을 인용해 독한 승부근성으로 무장하는 '독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체계를 갖추는 '경계', 새로운 사업환경과 신기술에 익숙해지는 '적응'을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125명의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시장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기존 영업 성장정체 돌파방안', '빅데이터-코드나인 상품과 마케팅력 강화방안', '2030세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장장 10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날 끝장토론은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며 "2015년 변화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시장변화에 맞춰 전략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alsa0203@

금융당국 국감, KB사태 핵심 이슈로

징계관련 공방 치열할듯… 가계부채도 도마에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를 비롯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업계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KB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KB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과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조근철 KB국민은행 IT본부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와 제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낙하산 인사 폐해와 지주사 시스템의 존속 필요성 여부도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역시 쟁점사항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도 핫이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몽윤 현대해상 상무, 미국 본사와 씨티은행 한국법인이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채신화기자 csh@

부동산시장, 복합단지가 달군다

노른자위 땅에 잇단 분양… 쇼핑·레저 등 편의성 극대화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공급이 뜸했던 고밀도 복합단지 분양이 올 들어 잇달아 재개돼 눈길을 끈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 노른자위 땅에 있는데다 단지 내 쇼핑·문화·레저 등의 시설을 갖춰 주거 편의성이 극대화가 전망된다.

복합단지란 두 가지 이상의 건물 용도가 결합돼 주거를 비롯한 비즈니스·쇼핑·문화·오락 등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개발 붐이 꺾였지만 최첨단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과거 복합단지가 중대형 위주로만 지어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에는 중소형 비율을 높이는 등의 실속형이라는 점에서 복합단지가 진화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서울 서초와 경기 광명에서 각각 '힐스테이트 서리풀'과 '광명역 파크자이'가 분양된다.

우선 서울 서초동 서울꽃마을5구역을 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서리풀'은 63빌딩과 맞먹는 연면적 14만8761㎡의 복합단지로 건립된다. 아파트와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되며, 이 중 아파트는 10층과 22층으로 이뤄진 2개동, 전용면적 59㎡ 116가구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어서 2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 진입이 쉽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 공급되는 '광명역 파크자이'는 전용면적 59~95㎡ 아파트 875가구와 24~39㎡ 오피스텔 336실로 구성된다. 광명역 일대는 상업·업무시설과 주택 9000여 가구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도 연내 소개된다. 연면적만 70만㎡에 달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호텔, 롯데마트, 관공서(경찰서), 축구장 7배 규모의 대규모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1·2차 물량이 높은 경쟁률과 함께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부산에서도 주거 복합단지가 나온다. 해운대구 중1동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엘시티'는 총 6만5934㎡ 부지 위에 101층짜리 랜드마크타워와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이 들어선다. 6성급 레지던스형 호텔, 워터파크, 전망대, 쇼핑몰 등 상업시설, F&B(테라스 키페 등) 등과 아파트 882가구가 배치된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함에 따라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먼저 공급된 판교 알파리움이나 롯데캐슬 골드파크 1·2차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ssun529@metroseoul.co.kr

에너자이저 '나이트레이스' 개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에너자이저 나이트레이스 2014에서 1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둠을 밝히며 힘차게 출발 하고 있다. /에너자이저 제공

아이폰6 '반짝 인기' 불구 문제 여전

와이파이·배터리 발열 심각 iOS 구버전 점유율 늘어나

애플 아이폰6가 공개 후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OS문제로 국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오히려 외면받고 있는 분위기다.

애플이 아이폰3GS 이후 아이폰4, 아이폰5등 후속 제품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연일 화제가 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국내 휴대폰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물론 최근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6·6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OS 문제다.

애플은 자체 OS인 iOS를 통해 차별화된 이용자경험(UX)을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진영과 경쟁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한 iOS8 업데이트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 애플 운영체제 iOS 8의 채용률이 47%로 나타난 가운데 iOS 구버전의 점유율은 오히려 5~6%로 오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17일 iOS 8을 배포했으나 웹 크래시(앱이 사용도중 갑자기 죽으면서 비정상으로 종료되는 현상)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애플은 업데이트 버전인 iOS 8.0.1을 배포했다. 그러나 iOS 8.0.1도 통화불능 상태가 되거나 터치 아이디 지문인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 애플은 공식 사과와 함께 iOS8.0.2를 공개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이번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등의 연결문제다. 여기에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발열현상과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애플의 아이폰6·6플러스 출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차가워지고 있고 있다.

아이폰5를 사용중인 최 모씨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빠르게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크게 실망했다"며 "배터리와 와이파이 연결 등 차라리 iOS7로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운기자 seun@

그린벨트 개발행위 확대

국토부 "소득 증대 위해 제도 개선하기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마을공동체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이기로 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 형태 따위의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1999년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1999년 28만여 가구, 94만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4만여 가구, 11만 명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사는 가구나 인구 수, 주택·창고 등 건축물 현황은 파악이 돼 있지만 주민들의 인구적 특성은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이번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 수요나 지원 방안 등 정책에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두희기자 kimd@

라츠, 조립형 사진액자 포토빗 출시

라츠(대표 조영삼)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과 설치할 수 있는 조립형 사진액자 '포토빗'을 출시했다.

포토빗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인화한 사진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인테리어 액자다. 미국에서 제조한 수입제품으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에서 출발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라츠를 통해 최초로 출시된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잘 마모되지 않는 ABS소재를 사용해 누구나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다. 액자의 앞판과 뒷판을 손으로 가볍게 분리할 수 있어 사진을 교체하기 쉽다.

포토빗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액자를 블록처럼 조립하고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이다. 포토빗 액자 연결고리를 이용하면 액자를 고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못만 있어도 여러 개의 액자를 자유롭게 이어 붙일 수 있다. 액자 하나를 벽에 고정시킬 때마다 별개의 못이나 나사를 써야 했던 기존 제품과 달리 모든 액자를 일일이 고정시키지 않아도 된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 서비스와 다수 카메라 앱에서 기본 규격으로 채택한 4X4 정사각형 사이즈에 프레임 컬러는 블랙, 화이트 2종이다. 구매고객 전원에게 국내 최대 디지털 사진인화 서비스업체 스냅스(www.snaps.kr)의 무료인화 쿠폰(최대 50장 무료인화)을 증정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포토빗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에서 10월 8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하나 Free
모으면 할인!

혜택 UP |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해외호텔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호텔, Ibis Adagio 호텔계산 할인 제외)	5,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5,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총금액의 1%마일리지 추가적립 (최대 5,000 마일리지)

혜택 조건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S Q4

희소가치로 더욱 돋보인다

강력한 터보엔진 위력… 승차감·핸들링은 아쉬워

많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마세라티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처럼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까닭에 마니아들에게는 '희소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어필한다. 최근에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그 가운데 이는 6세대로 진화한 콰트로포르테 S Q4를 최근 시승차로 만났다. 차체는 5세대 모델보다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 멋있었던 앞모습은 헤드램프를 치켜 올리면서 강렬하게 변신했다. 또 하나의 마세라티 세단 '기블리'를 떠올리게 하는 패밀리룩이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5세대의 뒷모습은 6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소 평범해졌다. 테두리를 밝히는 새로운 타입의 램프는 아우디 A6나 기아 K7 등 많은 차에서 보던 타입이다.

실내는 단순함 속에 개성 넘치는 아이템을 담았다. 센터페시아에 자리한 모니터는 낯설지 않다. 크라이슬러의 300C,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에서 보던 8.4인치 터치스크린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각종 스위치를 모니터 안에 대부분 넣어 센터페시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다른 기능을 조작하기 편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공조장치나 오디오를 컨트롤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다.

시트를 비롯해 내장재는 독일차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구분된다. 독일차들보다 덜 꼼꼼해 보이지만 장인이 '한 땀 한 땀' 작업한 폴트로나 프라우 가죽과 은은한 우드그레인은 마치 이탈리아 명품 가구를 보는 듯하다.

실내공간은 차체 크기에 비해 넓지 않다. 콰트로포르테는 차체길이가 5265mm이고 휠베이스가 3170mm인 반면, BMW 750Li는 5219mm 길이에 휠베이스가 3210mm다. 휠베이스가 3000mm를 넘는 차들은 대체로 뒷좌석 승객을 많이 배려하는데, 콰트로포르테는 운전자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뒷좌석 공간은 상대적으로 열세다.

콰트로포르테 S Q4의 심장은 V6 3.0ℓ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다. 최고출력은 배기량에 비해서 높은 410마력. 이 엔진을 독일 ZF의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렸다. 변속 타이밍이나 가속 반응에서 다소 아쉬웠던 5세대의 6단 자동변속기를 버리고 선택한 ZF의 8단 변속기는 상당히 민첩해졌다. 공차중량이 2090kg에 이르는 탓에 출발 가속은 다소 굼뜨지만 일단 탄력이 붙으면 트윈 터보 엔진의 위력이 빛을 발한다. 최대토크 56.1kg.m는 1650~5000rpm의 넓은 구간에서 파워를 뿜어낸다.

돋보이는 엔진에 비해 승차감과 핸들링은 다소 아쉽다. 평소 승차감은 다소 물렁하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했을 때는 다소 딱딱하다. 특히 요철을 지날 때 쿵 하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운전자를 당황스럽게 한다. 서스펜션이 충격을 받은 후 다시 튀어오를 때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리바운스가 세련되지 못한 탓이다.

네바퀴를 굴리는 콰트로포르테 S Q4는 평소에 뒷바퀴에 구동력을 100% 전달하고, 접지력의 변화에 따라 앞뒤 50:50으로 구동력을 나눈다. 다가오는 겨울철 주행에서 후륜 세단보다 안심되는 이유다. 표시연비는 도심 6.3km/ℓ, 고속도로 10.2km/ℓ인데, 시가지 위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4.9km/ℓ의 연비를 나타냈다.

마세라티는 희소성 면에서 벤츠, BMW, 아우디보다 확실히 낫다. 마세라티에 입문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그 독특함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독일 라이벌에 비해 훨씬 열악한 AS 네트워크와 이탈리아 차들의 고질적인 잔고장 등은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가격은 1억6620만원으로 BMW 750Li xDrive(1억8380만원), 메르세데스 벤츠 S500L(1억9510만원)보다 약간 싸다.

스파크,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대

쉐보레(Chevrolet) 브랜드 스파크(Spark)가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스파크는 최근 글로벌 3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준중형 모델 크루즈(Cruze)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차종임을 입증했다.

2009년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생산되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로 국내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스파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 71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파크 스페셜 에디션 캔 & 비트.

올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 판매 신장세를 보이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35세 미만의 쉐보레 구매자가 9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스파크		500	690	760	860
기아	올뉴모닝		550	780	810	900
현대	아반떼MD	–	1,160	1,200	1,270	1,430
	YF쏘나타	1,200	1,270	1,350	1,550	1,810
기아	K5		1,470	1,420	1,730	1,770
현대	제네시스	1,690	2,140	2,070	3,020	3,550
기아	K9		–		3,710	4,100
현대	싼타페 CM	1,510	1,740	1,810	2,020	–
기아	스포티지R		1,720	1,770	1,800	2,100
	쏘렌토 R	1,780	1,810	1,890	2,130	2,810
르노삼성	뉴 QM5	1,470	1,530	1,890	1,930	2,230

정보제공: 다음 자동차(auto.daum.net)

벤츠, BMW 제치고 수입차 판매 선두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를 제치고 수입차 월간 판매 1위로 올라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 3538대, BMW 3303대로, 수년 간 월간 판매 1위를 놓지 않았던 BMW를 벤츠가 추월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도약은 C클래스와 CLA, E클래스 판매가 고루 늘어난 덕분이다.

이들 브랜드에 이어 아우디 2349대, 폭스바겐 2239대, 포드 733대, 토요타 666대, 크라이슬러 564대, 렉서스 537대, 랜드로버 443대, 미니 434대, 닛산 335대, 혼다 317대, 볼보 298대, 인피니티 294대, 푸조 289대, 포르쉐 284대, 재규어 155대, 캐딜락 89대, 시트로엥 60대, 벤틀리 43대, 롤스로이스 3대, 피아트 2대였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719대), 메르세데스 벤츠 E 220 CDI(610대), 아우디 A6 35 TDI 콰트로(446대) 순이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C클래스

9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8월 등록보다 3.6% 증가한 1만7027대로 집계됐다. 9월 등록은 전년 동월 1만2668대보다 34.4% 증가했으며 2014년 3분기까지 누적 14만5844대는 2013년 누적 11만6085대보다 25.6% 늘어난 것이다.

9월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8751대(51.4%), 2000cc~3000cc 미만 6469대(38.0%), 3000cc~4000cc 미만 1348대(7.9%), 4000cc 이상 454대(2.7%), 기타 5대(0.0%)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3490대(79.2%), 일본 2149대(12.6%), 미국 1388대(8.2%)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 1만1174대(65.6%), 가솔린 5105대(30.0%), 하이브리드 743대(4.4%), 전기 5대(0.0%)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만7027대 중 개인구매가 1만404대로 61.1%, 법인구매가 6623대로 38.9%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2892대(27.8%), 서울 2617대(25.2%), 부산 750대(7.2%)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2125대(32.1%), 부산 1262대(19.1%), 경남 1178대(17.8%)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전무는 "9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해소 및 신차효과와 더불어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이제는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세월호 참사로 5개월 남짓 공전을 거듭한 끝에 국회가 열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질 막말과 파행의 연속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예산심의와 함께 양대 임무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거말 것 없이 막말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정회가 빈발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거 청와대 얼라(어린아이라는 뜻의 사투리)들이 하는 거냐"며 야당 중진의원이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새(새정치 민주연합 지칭)는 유난히 빽빽"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더 그래요"라고 적은 쪽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고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바람에 소속 상임위에서는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무위에서는 야당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당간사에게 "능력 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가라! 한국말 못 알아듣냐?"라며 막말을 퍼부어 30분이나 넘게 파행을 보였다. 여기에다 어느 의원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사진을 스마트 폰에 띄워 의원으로서 참람미담(?)을 보여주기도 했다.

환노위와 교문위에서는 증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말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특히 기업인을 무더기로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인의 증인채택은 진실규명 여부보다는 '군기잡기'에 가까운 '갑질 이라는 볼멘소리'를 비판도 받고 있다.

우선 기업인 증인 출석수가 해마다 늘어나 2011년 80명에서 2012년 164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77명에 달했다. 통상 10시간 이상 대기시키면서 질문은 1분 남짓하며 "그것도 말 끊기가 다반사 이고 고함이나 호통 치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감을 국민들이 공감할 리가 없는데 예도 국회는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 던지고 있다.

이제 국정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 특히 국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정책감사의 길을 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국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감기관을 해당 상임위에서 선별해 표본감사를 하거나 윤번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온 의원에 대해서는 불공천 등 어떤 방식에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원특권 을 비탕으로 벌이는 지금과 같은 구태 국감을 벗어날 수 없다.

포토프리즘

아리리가 났네~

부일 오후 서울 경희궁광장에서 열린 '2014 서울아리랑 페스티벌'에 참석한 가수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이날 추운날씨속에도 많은 시민들이 현석해 아리랑의 역사문화시적 의미를 되짚어 봤다. /손진영기자 son@

금융권 CEO 인사 주시한다

뉴스룸에서

김하성 <부국장·금융시장부장>

요즘 CEO(최고경영자) 인사 선임 문제가 금융권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내분으로 곤박 상태가 된 KB금융그룹 회장을 비롯 KDB대우증권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후임 선출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 지기 회장에 과연 누가 선임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시다. 유력후보였던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사퇴함에 따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7명이 경합중이다.

KDB대우증권은 이심규 수석부사장과 이영창 전 부사장 등 6명의 후보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11월 30일,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 12월8일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선임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기 은행연합회장엔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차기 생보협회장엔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과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이 경쟁중이라고 한다.

인사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모 후보는 출신 지역을 배경으로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느니 말부 후보는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등 혼탁 양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구태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핵심은 비켜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금융은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로 가나(52위), 캄보디아(65위)에도 뒤처져 이른 얘기를 주고 있다.

뿐만이니다. 최근 IMF는 독말·경계 부진 등으로 인해 유로존이 2009년 위기 이후 세 번째로 '경기후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도 IMF이후 10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융권 CEO는 낙후된 한국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위기대처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인사 선임의 기준이 돼야 한다.

퇴직 관료나 정치권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관치는 더더욱 안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금융권 CEO 인사를 주시하는 이유다.

어르신께 告합니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철순의 노부부는 대치동의 한 전시장을 찾았다. 느린 걸음으로 행사장을 돌았다.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눴고, 부스를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느라 바빴다. 말로 봐도 시간이 남아서 마실 나온 것은 아니었다. 두 시간 남짓한 정보 수집을 마치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궁리 중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몇 번의 부동산 정리가 있었는데 매번 쿠마락금이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노인 학대가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대부분의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다. 학대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게 도움을 줄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을 자식에게 주고 살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다. 더 줄게 없고 더 남길 게 없다면 숨소리도 내지 말고 살라는 위협뿐이다.

평생 벌어둔 그 만큼밖에 못줬으면 자식 어깨에 짐 지우지 말고 사라져 달라는데 할 말이 없다. 어느 한심한 청춘이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고려장은 고려시대의 풍습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장례문화의 기록을 보면 어디에도 부모를 진짜에서 홀로 숨지게 하는 사실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장례를 소홀히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기로설화에 보면 부모를 버리려 하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잘못을 지적해서 아버지와 손자가 조부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나온다. 이 이야기의 기로국이 고려국으로, 기로장이 고려장으로 바뀌었다. 이 설화의 교훈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버리면 훗날 아들도 아버지를 버릴 것이라는 데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 다르지 않다.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실버산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노년층의 재력이 있고, 그 재력의 핵심에는 자식 손에 여생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리한다. 이런 관계는 부모가 아닌 자식의 사상과 태도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자식을 그렇게 성장시킨 부모의 교육방식과 사회 시스템의 잘못이 더 크다. 스스로 채우하고 이쉬운 삶의 여정을 만든 셈이다. 이제라도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자. 그로 인한 배영감은 모두에게 화근이다.

어르신께 고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더 당당하십시오. 학대에 감경히 대응하시고, 엄하게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고유한 여생의 기지를 찾인 하십시오.

/IT 마케팅칼럼(www.tl.co.kr) 대표

화장품 동물실험 불편한 진실

기자수첩

박지원 <생활유통부 기자>

지난 주말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엑스포를 열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바르는 화장품,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실험 반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몇 해 전부터 '드레이즈 테스트(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계속 주입하는 것)'와 같은 동물실험은 그 자체의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도 올 6월부터 자국 생산 제품 중 일반화장품에 한해 동물실험을 면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나라다. 국내 상당수의 업체가 동물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대체 실험법을 사용한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동물실험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이유로 희생되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수 없어'라는 한 광고 문구처럼 동물실험의 비인도성에 대해 인식하고 '착한' 제품을 선택하는 올바른 소비만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동물실험을 막을 수 있다. 결국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이다.

오뚜기, 건강기능식품 '네이처바이'

연령별·성별 맞춘 신제품 출시로 눈길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40여 년의 식품 제작과 연구개발 제조 노하우를 담아 지난 2012년 런칭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바이(NatureBy)'가 소비자 건강을 생각한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브랜드는 2012년 런칭 당시 어린이·청소년, 성인, 갱년기, 노년층 등 연령에 따라 잘못된 생활·식습관으로 인한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구성됐다.

커큐민을 함유한 옐로우(Yellow) 제품을 비롯해 ▲라이코펜을 함유한 레드(Red) 제품 ▲채소와 과일 등 식물성원료를 함유한 그린(Green) 제품 ▲베리류 함유한 퍼플(Purple) 제품 등 4가지 계열로 나눠 진다.

회사 측은 또 이어들어 좋아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 '뽀로로 멀티비타민 & 미네랄 츄어블'을 출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레드토 미토라이코펜 프리미엄'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주원료인 토마토 추출물이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기초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10종이 함유됐다.

'레드토마토라이코펜프리미엄'은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일 1회 1캡슐 씩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식이며 전국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정윤일기자

크리스피 크림 도넛, 고객 초청 '핼러윈 파티'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 크림 도넛'(대표 노일식)이 다가오는 핼러윈 시즌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5개 지역에서 '핼러윈 파티'를 개최한다.

이 파티는 핼러윈데이 분위기를 캐주얼하게 구현토록 기획됐으며 지난해 서울 지점 파티를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는 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해 약 1000명의 고객을 무료 초청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 페이스북(www.facebook.com/kkdkorea1937)에 참가희망 사유 댓글 달기 및 매장 고지물에 있는 QR코드 응모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같은 기간 신사역점·인천 구월점·대전 둔산점·부산 덕천점·광주 상무점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초청장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정윤일기자

롯데리아, 셀카봉 2차 판매

롯데리아의 셀카봉이 인기다.

롯데리아는 지난 9일부터 모든 세트 메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셀카봉 특가 판매 2차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선 1일 롯데리아는 세트 구매 고객에게 셀카봉을 3000원에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 하루 만에 준비됐던 물량 4만여 개를 모두 판매한 바 있다.

롯데리아 측은 셀카봉이 조기 완판됨에 따라 2차 입고를 통해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윤일기자

포장으로 고객 시선을 사로잡다

식음료업계, 개성 담은 '리뉴얼'만으로 대박 행렬

식음료 포장은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적 요소와 함께 맛이나 특징 등을 소비자에게 한 눈에 알릴 수 있는 디자인적인 기능도 중요하다. 최근 유통업계는 제품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기존 제품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 매출 활성을 유도하는 시도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커피전문점 브랜드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매장에서 판매하는 '티(Tea)' 제품의 포장을 프리미엄급으로 바꿔 출시했다. 기존에 판매되던 9종 중 지난해 판매율이 높았던 5종을 엄선해 최고급의 원료를 사용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포장 재질도 프리미엄급 품격에 어울리도록 기존 종이에서 알루미늄 틴케이스로 바꿨다. 향이 중요한 차 제품의 특성상 보관이 용이하고 고급스러움은 높였다. 포장 디자인의 겉만 보고도 차 제품의 성분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색상 요소를 활용하고 이디야에서 직접 디자인한 그래픽 패턴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이 제품의 리뉴얼 결과는 대단했다. 출시 한 달이 되지 않아 1만개 판매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인 3500여개의 3배가 넘는 성과라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제품의 콘셉트 자체를 디자이너와 협업해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사례도 있다. 국내 최초 믹싱주인 믹스는 최근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 존 원(Jon One)과 협업을 통해 3가지 디자인의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필(Feel)' '프리(Free)' '펀(Fun)'이라는 3가지 주제를 제품 디자인에 담아냈다. '국내 최초 믹싱주'라는 제품 특성과 어우러지며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인 허쉬의 한국 법인인 허쉬코리아는 이달부터 리뉴얼된 '허쉬 키세스(Kisses)' 판매에 나섰다. 한국인 취향에 맞게 초콜릿 본연의 색상부터 맛, 감촉까지 세심하게 테스트해 선보인 제품이다. 한국인의 취향을 고려해 기존보다 설탕의 비율은 19% 줄였다. 포장도 기존의 사각 봉지 사이에서 형태를 바꾼 신규 디자인은 키세스 초콜릿 고유 형태인 곡선형을 살려 초콜릿의 특징을 부각했다. 특히 포장재에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따른 이용한 포인트와 하트 모양을 연상시켜 부드러운 느낌을 더했다. /정윤일기자 ryus@metroseoul.co.kr

신나는 자동차 장난감 SK 플래닛 11번가가 1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가을철 나들이 가족을 위한 '유아동 승용완구 기획전, 우리아이 키즈 모터쇼' 소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번가는 3관련다 폭스바겐 부릉카부터 벤츠, 벤틀리 등 40여종의 승용완구를 최대 33%까지 할인 판매한다. /11번가 제공

수능 한 달, 수험생 건강 챙기세요~

강강술래,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30%할인
기력보충·면역력증진 등 체력보강에 도움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과 압박감이 높아진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수험생들의 체력 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양식과 영양간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곰탕은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다.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100% 국내산 돼지 통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2.16kg·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kg·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캠핑 시즌을 맞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왕화' 그 푸르름에 물들다' 전시회 티켓과 어드큐 및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프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를 증정한다. /정윤일기자

출범 전부터 말 많은 '제7홈쇼핑'

중기청, '홈앤쇼핑 지분 매각 검토' 잡음
설립도 되기 전에 업계 대표 국감 줄소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제7홈쇼핑이 설립 전부터 운영자를 두고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기청, 홈앤쇼핑 지분팔아 제7홈쇼핑 설립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 의원이 확보한 중기청 내부문건 '공영 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혁신제품 시장진출 방안'에 따르면 홈쇼핑 설립을 위한 2가지 방안이 명시돼 있다.

첫째는 유통센터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익목적의 홈쇼핑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설립 초기 비용으로 300억~4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공동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계획이 거론됐다.

문제는 유통센터가 갖고 있는 홈앤쇼핑 출자 지분 15% 중 5~9%를 팔아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홈앤쇼핑 지분은 2016년 6월까지 매각이 금지돼 있다.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11년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 설립 인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지분매각 금지 조건에 위배된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특성을 감안해 대기업 등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주주 중 누구라도 지분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홈쇼핑 운영의 적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업계 "운영 주체는 중요하지 않아"

홈쇼핑 업계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에 대해 "누가 운영하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도 후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며 "국감에서 나왔듯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동안 대기업 제품을 취급해왔고 홈앤쇼핑의 지분을 팔아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가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우정사업본부 등이 사업자로 거론돼 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7홈쇼핑 설립에 따른 송출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홈쇼핑 업체는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황금채널'을 배정 받기 위해 송출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실제 송출수수료는 2011년 홈앤쇼핑이 출범한 이후 20~30% 가량 뛰었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제7홈쇼핑 신설 이후 송출수수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홈앤쇼핑·롯데홈쇼핑, 국감 출석 – "나 떨고 있니?"

13일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의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납품비리와 관련 증인으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제7홈쇼핑 설립 관련해 참고인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국감 출석은 예상된 일이어서 회사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sj0215@metroseoul.co.kr

패션 브랜드, 영화와 만나다

패션필름, 단순 홍보 영상 넘어 전문 장르로

패션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패션필름이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닌 진정한 '예술'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패션필름은 포토그래퍼와 디자이너는 물론 영화감독까지 참여하는 전문 장르로 급부상 중이다. 업계들은 시즌별 콘셉트와 브랜드 스토리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반기는 추세다.

미우미우는 2011년부터 시즌마다 '우먼스 테일(Women's Tales)'이라는 시리즈의 패션필름을 내놓고 있다.

1편 '파우더', 2편 '무티' 등에 이어 지난 6월 여덟 번째 프로젝트는 '섬바디(Somebody)'를 공개했다. 섬바디에서는 영화 제목과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타인의 입을 빌어 표현하기 어려운 속마음을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쾌한 앱으로 여성과 패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보여준다.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거장 감독 박찬욱과 함께 '어 로즈 리본(A rose reborn)'을 제작했다. 박찬욱 감독이 각본까지 참여한 이 패션필름은 '미스트 앤 인더 크라운'과 '킬링 유어 달링'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촉망 받는 배우 데인 드한과 '하얀' 으로 유명한 중화권 미남스타 오언조(나나웰 우)가 주연으로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끈다. 두 주인공은 돈에 박힌 상류층 리더가 아닌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발명품 '에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도 이 영화의 백미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상징적인 비주얼 상상력과 유머감각도 극의 재미를 높인다.

총 3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최종 완결편은 10월 22일 열리는 상하이 국제 패션위크의 개막식에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알렉산더 맥퀸은 2014년 패션필름으로 공포영화를 제작했다. 공포 영화의 걸작 '저주의 카메라'를 오마주했다. 감독 스티븐 클라인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색감과 케이트 모스의 섬뜩한 연기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박지원기자

"캠핑장 모기 퇴치부터 간식까지 해결"

전용 해충기피제·진공단열 컵·간편식 등 눈길

글램핑·오토캠핑·백패킹 등 다양한 종류의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캠핑 때 유용한 용품들이 출시돼 초보 캠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써모스 코리아의 진공단열 컵 'JDA'는 보온병 구조의 제품으로 시원한 음료를 담았을 때 장시간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얼음을 넣어도 결로현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거품이 있는 음료인 맥주·콜라는 물론 아이스크림인 팥빙수와 같은 별미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캠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가을까지 기승을 부리는 모기의 살인진드기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바짝 말린 오렌지 껍질을 준비해 가면 된다. 말린 껍질을 타지 않는 그릇 위에 놓고 불을 붙여 주면 모기를 쫓는 천연 모기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불등광이같은이어들은 몸에 직접 뿌릴 수 있는 해충기피제를 사용해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방충선언 에어로솔은 가볍게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팔이나 다리에 직접 뿌려도 안전한 인체용 의약외품이다.

한편 간식은 간편하고 휴대성 높은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야경의 '헬스엔 그래놀라 요거맘'은 분말 타입의 요거트이기 때문에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

풀무원의 '더스푼 브런치감자'는 뜨거운 물만 붓고 스푼으로 골고루 저으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으깬 감자다.

/김수정기자

1분에 3만번 진동으로 치석 말끔히 제거

아쿠아픽, 신개념 음파칫솔 'AQ110' 출시

오랄 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이 새로운 개념의 음파칫솔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음파칫솔은 AQ110 모델로 현재 유통 중인 전동칫솔과는 달리 1분에 2만에서 ~3만회의 진동으로 치석 제거에 도움을 주며 무접점 충전방식으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물기를 건조하지 못하는 칫솔의 특성상 세균번식이 우려되는 만큼 적외선 살균기능과 어린이의 구강에 맞게 중간 칫솔모와 작은 칫솔모를 함께 제공하고있다.

한편 아쿠아픽은 구강세정기 지피기자제~치아 미백전문의약품, 가글치약 등 치아 토탈 케어에 앞장서 온 기업이다.

아쿠아픽 관계자는 "출시하자마자 인기가 있다며 가정 욕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www.aramb.kr)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품 문의는 무료상담전화(080-405-7000)로 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국내여행 고급화 '레일크루즈 해랑'이 이끈다

최고급 서비스로 효도 상품·주말 가족여행 큰 인기

국내여행의 고급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차여행 '레일크루즈 해랑'이 화제다. 중저가 해외여행 상품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면서도 저렴한 것 외에 특별함이 부족했던 국내여행의 프리미엄을 강조하여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시작된 해랑은 호텔과 열차가 결합된 호텔식 관광전용 열차로 일정과 객실 타입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열차 내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전국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연 평균 4000명, 총 관광객 2만명이 넘을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장거리 해외여행의 부담을 없애고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효도여행 상품과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으로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주말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해랑을 운영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효도여행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화요일 출발 2박 3일 아우라 코스와 자녀를 둔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토요일 출발 1박 2일 패밀리·해오름 코스(격주 운행)를 운영한다.

전국을 일주하는 아우라 코스는 서울역에서 해랑에 탑승한 후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만 생태공원과 낙안읍성 등을 둘러본 후 광양으로 이동한다. 이후 진주와 통영을 거쳐 부전역을 떠나 정동진으로 향한다. 패밀리 코스는 군산역이 중심이 되는 서남부권 코스이며 해오름 코스는 추풍령역으로 이동해 여행을 시작하는 동남부권 코스다.

이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5월 밀레니엄 서울힐튼과 패키지 상품 출시 업무 협약을 맺고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객실과 레스토랑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또 '해(태양)와 더불어 금수강산을 돌아본다'라는 의미의 해랑이라는 말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부터 열차 내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한국의 고급스러운 전통미가 돋보이는 외관은 코발트블루와 봉황 문양으로 새겨져 있으며 침대와 샤워시설, 소파 등 각종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게다가 고급스러운 실내에서 즐기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식음료와 와인 서비스, 승무원들의 마술 공연과 연주 등의 이벤트도 해랑만이 제공하는 매력이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해랑은 시즌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코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고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기 코스 외에도 가을시즌에는 단풍을 즐기는 특별 코스도 준비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도심 숲 산책하고~ 별미도 맛보고~

특급호텔서 만끽하는 가을의 여유

가을이 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도심 속 숲에서도 가을을 만끽하고 맛있는 가을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 가을 나들이에 어울리는 도심 속 특급호텔을 소개한다.

◆오색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어길

양재시민의 숲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탁 트인 하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공원에는 1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우거져 있다. 특히 가을이면 오색으로 물드는 메타세쿼이어 단풍길이 탄성을 자아내며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알차게 들어서 있다.

더욱이 양재시민의 숲과 연결된 한적한 산책로를 운영 중인 The-K호텔서울은 '가을 5大 별미 특선'을 선보이고 있다. 자연송이와 한도산 전복 등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산책 후 만나는 '미각의 향연'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언에 자리잡은 광진구 워커힐 길은 워커힐 호텔 뒤쪽부터 아차산 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2㎞의 가로수 길로 조성돼 있다. 나무 데크로 돼 있어 유모차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니기 좋으며 아차산 올레길로 향하면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된다.

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북캐 레스토랑 포시즌에서 특별한 만찬 '미각의 향연'을 오는 17일 저녁 개최한다. 오픈 키친에서 즉석요리가 제공되며 워커힐 소믈리에의 추천 와인과 프리미엄 생맥주도 즐길 수 있다.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강남

복잡한 강남지역에 위치한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 서리풀 공원은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장소다. 초급자도 쉽게 걸을 수 있을 만큼 코스가 무난하며 곤사한 오솔길이 펼쳐져 있다. 게다가 프랑스의 유명 시들이 공원 곳곳에 전시돼 있어 이국적인 풍경아 색다른 재미를 준다.

아울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로비라운지에서는 가을 제철과일로 만든 디저트와 커피 또는 차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가을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즐길 수 있는 '놀이 워크숍' 인기

힐링·캠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중

워크숍이 진화하고 있다. 리조트나 연수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기존 워크숍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평소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워크숍이 최근 인기다.

먼저 힐링에 초점을 맞춘 미술심리치료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다. 미술 활동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공유하며 감정의 이완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작나무심리상담센터와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가족미술치료연구소들이 유명하다.

또 멀리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캠핑 워크숍이 제격이다. 텐트에서 하루를 보내며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과 동료애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동하면서 허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가까운 한강둔치에 위치한 난지캠핑장 등 서울 인근의 캠핑장에서는 20인까지 수용 가능한 몽골텐트 등 기업 워크숍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인사동 오감만족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의 암흑 체험 프로그램인 다크룸 에피소드1은 암흑 공간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동해야 팀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방식이라 이색적인 재미뿐 아니라 조직원들의 친목을 다지는데도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데뷔, 무섭지만 또 행복해"

첫 앨범 '난' 발표하는 **버나드 박**

SBS 'K팝스타3' 우승 후 6개월 우리말·음식 등 한국생활 '완벽적응'

지난 4월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3'에서 우승한 버나드 박(22·박낙준)이 드디어 가요계에 정식으로 발을 내딛는다. 방송 당시 나이보다 성숙한 목소리와 감성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그가 사랑과 이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래한 데뷔 앨범 '난'을 발표한다. 치열한 예선부터 긴장감 넘치는 생방송 무대까지 거쳐 우승을 거머쥔 그는 "사실 조금 무섭다. 첫 앨범인데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긴장된다"고 말했다.

◆ 타이틀 곡 '비포 더 레인'

우승 후 박진영 프로듀서를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던 그는 팬들의 예상과 달리 조규찬이 만든 노래 '비포 더 레인'을 타이틀곡으로 들고 나왔다. '비포 더 레인'은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옆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잔잔한 발라드 곡이다.

"조규찬 선생님이 방송을 보고 제 목소리를 생각하며 노래를 써주셨다고 했어요. '비포 더 레인'의 가사가 꿈을 그리는 내용이잖아요. 저 역시도 노랠 처음 들었을 때 바로 'K팝스타'가 떠올랐어요.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가사인데 녹음하는 내내 방송 당시를 생각하며 노래했죠."

그의 설명대로 '비포 더 레인'은 조규찬이 처음부터 버나드 박을 염두에 두고 쓴 곡이다. 조규찬은 앞서 한 자리에서 어느 순간 멜로디가 떠올라 멈춤 없이 한 번에 작곡한 몇 안 되는 곡이라 밝히기도 했다.

선공개곡 '난'은 박진영이 지난 1997년 발표한 노래로 버나드 박의 서정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어쿠스틱 기타와 오케스

버나드 박 데뷔 티저 애니메이션 '버나드 곰 이야기' /JYP 엔터테인먼트

트라 선율을 바탕으로 재해석됐다. 쟁쟁한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담되진 않을까. 그는 "데뷔가 무섭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 한국 생활 '완벽 적응'

미국 애틀란타에서 나고 자란 그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엔 아직 어린 나이다.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선 데뷔 앨범이 어떻게 될 지도 잘 모르지만, 우선 활동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커서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되시나 봐요."

그의 부모님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그는 한국말이 여전히 조금은 서툴지만 간단한 답변 한 마디에도 곰곰이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우승 후) 6개월 동안 보컬 레슨, 악기 레슨하고 한국어 수업도 받고 있어요. 사실 한국생활이 편해요. 제일 좋은 건 먹는 거요. 음식이 전부 다 맛있어요."

방송 당시 박진영에게 팝송에 비해 한국 가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던 그는 한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했다.

"예전엔 가사를 이해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박진영)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녹음할 때도 또 설명을 들었어요. JYP를 택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한국 가요를 많이 몰랐고, 방송 당시 K팝을 부르면 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배우고 싶었는데 박진영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죠. 그리고 팝 발라드도 하고 싶은데 그런 노래도 박진영 선생님에게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죠."

◆ 노래하는 곰돌이?

그는 데뷔를 앞두고 '버나드 곰 이야기'라는 짧은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곰돌이는 영락없는 버나드 박이었다.

"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릴 땐 별명이 하마였어요. 덩치 큰 동물은 거의 다 닮았단 소리를 들어요. 방송 끝나고 미국 갔을 때 사진 찍은 거 보고 놀랐어요. 살이 좀 쪘더라고요. 그래서 3kg 뺐는데 그래도 곰돌이 같나요?"

곰돌이처럼 귀여운 얼굴이지만 목소리와 행동은 역시 자타공인 '애늙은이' 같다.

"애늙은이!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노래도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 미국 살 때 노래방에서 처음 부른 한국 노래가 안재욱의 '포에버'였어요. 다섯 살 때였나?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불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게 처음 부른 한국 노래예요. 또 임창정, 인순이 선배님 노래도 즐겨 들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 가수는 박효신과 윤민수다.

"박효신 선배의 '야생화'를 자주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제 팬은 아니 아시겠지만 바이브(윤민수 소속 그룹)의 광팬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노래 들으며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넉 달이나 지났지만 뒤늦은 우승소감을 묻자 그는 "'K팝스타' 예선이 애틀란타에선 처음 열렸어요. 그래서 온 김에 한번 시도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우승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무대 위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데뷔라니 꿈만 같아요."

/장병호기자 [email]@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10.20 (월) 밤 11시 첫 방송

이상윤 ♠ 신성록

tvN

거미 소극장서 명품 보컬 향연

데뷔 12년 만에 처음

거미(사진)가 소극장에서 명품 보컬리스트의 진수를 보였다.

거미는 10~11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소극장 콘서트 '폴 인 폴(Fall in Fall)'을 개최했다. 작은 공연장임에도 밴드까지 동원한 거미는 180분간 가을밤과 어울리는 로맨틱하고 따뜻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7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던 '폴 인 어쿠스틱(Fall in Acoustic)'에 이어 더 가까이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기획된 가을밤 콘서트다. 거미는 "데뷔한 지 12년째인데 소극장 공연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며 "오늘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공연 제대로 즐겨보자"고 말하며 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 '로스트 스타즈(Lost Stars)', 조용필의 '바운스(Bounce)',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Mr. Chu)',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한진영의 '흔한 가약 속의 그대',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등 다른 가수들의 인기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일에는 소속사 동료인 YJ의 김재중, 11일에는 절친한 동료인 바비킴이 게스트로 오르자 관객들은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다.

거미는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많은 공연을 보러 다녔지만 그 중에서 소극장 공연을 통해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공연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소극장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니"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윤순호기자

"국내는 좁다" 신예 아이돌 해외로

데뷔 첫 일본투어를 마친 위너가 12일 제프도쿄 공연에서 팬에게 인사하고 있다.

위너·갓세븐 日 데뷔앨범·투어… 아이콘 中 팬미팅

차세대 대표 남성 아이돌 그룹들이 경력을 무색케 하는 활발한 해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너는 첫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들은 '위너 1st 재팬 투어 2014'라는 이름으로 삿포로·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를 거쳐 11~12일 도쿄의 제프도쿄에서 투어를 마무리했다. 총 5개 도시에서 11회 공연했고 2만5000명을 동원했다.

위너는 데뷔 전부터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선배 그룹인 빅뱅의 일본 돔투어 오프닝 가수로 나서는 등 발빠르게 해외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데뷔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일본에서 데뷔 앨범 '2014 S/S -재팬 컬렉션'을 발표해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 공연에서 리더 강승윤은 "위너는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투어는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라며 "아직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위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앙코르 무대에서 팬들이 '고마워 WINNER'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일제히 들자 멤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 시내 곳곳에 붙은 갓세븐의 데뷔 싱글 홍보 간판

YG엔터테인먼트의 다음 신인 그룹으로 내정된 아이콘(iKON)은 데뷔도 하기 전에 중국에서 팬미팅을 열고 1400여 명의 현지인들과 만났다.

신인 그룹 아이콘의 멤버를 뽑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 앤 매치'에 출연 중인 9명의 YG 연습생들은 11일 베이징 클럽 사이더에서 글로벌 투표를 겸한 팬미팅을 했다. 9명 중 7명의 연습생이 아이콘 멤버로 발탁되며 선정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YG에 따르면 이번 팬미팅에는 약 6만 명이 응모했다. 앞서 지난 5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한 팬미팅에는 경쟁률 20배인 약 4만 명이 응모하는 등 아이콘 예비 멤버들은 데뷔 전부터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9명의 연습생들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무대매너로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뛰어난 라이브 실력을 보였다. 이들은 17일 서울 디큐브시티 디큐브파크에서 팬미팅과 글로벌 투표를 진행한다.

1월에 데뷔한 JYP엔터테인먼트의 남성 그룹 갓세븐은 일본 데뷔를 앞두고 현지 음원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2일 데뷔 싱글 '어라운드 더 월드'를 발표하는 갓세븐은 수록곡 '소 라키'로 일본 최대 벨소리 사이트 레코초크의 일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갓세븐은 지난달 8일 타이틀곡 '어라운드 더 월드' 공개 당시에도 이 차트 정상에 올랐다.

갓세븐은 7월 오사카에서 첫 번째 일본 전국투어 '갓세븐 1st 재팬 투어 2014 어라운드 더 월드'를 시작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비스트 가을 남자로 돌아온다

발라드 타이틀 내세운 미니 7집 발표

그룹 비스트(사진)가 20일 미니 7집 '타임'을 발표한다.

새앨범 '타임'에는 타이틀곡 '12시 30분'을 비롯해 힙합곡 '드라이브' 등 6곡이 수록된다. 비스트의 이번 타이틀곡은 발라드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가 오는 날엔' '아름 쏘리' '이젠 아니야' 등을 잇는 비스트표 발라드로 기대를 모은다.

수록곡 중 헤어짐을 앞둔 남자의 감정을 담은 '좋은 일이야', 이별의 쓸쓸함을 노래한 '눈을 감아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댄스곡 '가까이' 등 5곡은 작곡팀 굿 라이프가 프로듀싱했다. 굿라이프는 비스트의 용준형과 단짝인 작곡가 김태주가 결성한 작곡팀이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 '좋은 삶'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로 팀명을 붙였다. 이번 앨범에서 프로듀서로 참여해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비스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독특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수록곡 중 나머지 한 곡은 이기광이 만든 '소 핫'이다.

비스트는 12일 공식 SNS 계정에 '12시 30분'을 비롯한 새 음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비스트는 차가운 느낌의 무채색 공간을 배경으로 쓸쓸한 눈빛과 고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순호기자

장기하 '내 사람' 온몸 표현

3년 4개월 만의 신곡 뮤비서 현대무용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가 신곡 '내 사람'을 위해 현대무용을 배웠다.

장기하(사진)는 지난 7일 공개된 장기하와 얼굴들 정규 3집 선공개곡 '내 사람' 뮤직비디오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을 췄다.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다가 세트장 곳곳을 돌아다니고 영상 말미에는 소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몸에 대한 곡이다. 이에 장기하는 자신의 몸을 100% 활용한 퍼포먼스로 음악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기하는 이 장면을 위해 6월부터 국내 대표 현대무용단 안은미 컴퍼니의 김기범 안무가에게 춤을 배웠다.

장기하는 현대무용을 배운 이유에 대해 "새로운 동작을 익히기보다는 내 몸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였다"며 "내 몸을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춤이 현대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2011년 6월 발표한 정규 2집 '장기하와 얼굴들' 이후 3년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규 앨범 '사람의 마음' 발매를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 출시를 목표로 앨범을 작업 중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투어를 진행한다.

/전효진기자 jeonhj@

골라 듣고 보는 '뮤직 드라마'

클래식·가요·록 등 다양… "눈·귀 동시 자극 흥행시 부가가치↑"

음악과 어우러진 로맨스 뮤직 드라마가 시청자를 사로잡는 이유다. KBS2 새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와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는 '베토벤 바이러스'(2008), '드림하이'(2011~2012)에 이어 오랜만에 선보인 지상파 음악 드라마다. '내일도…'는 클래식, '내겐…'은 가요를 들려준다. 오는 18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주말극 '모던파머'는 록 음악으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내일도…'는 클래식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청춘들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담는다. 작품은 예고 영상부터 클래식을 부각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배경으로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의 선율이 내레이션과 어우러진다. 특히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마에스트로 요엘 레비의 지휘에 맞춰 연주 중인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은 고품질 음악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출연 배우들은 연주 연습에 한창이다. 배우 주원은 지난 7일 인터뷰에서 "지휘 연습을 5~6개월 정도 했다"며 "우리나라에는 '베토벤 바이러스'의 김명민 지휘자가 있다. 그 이상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연습했다"고 말했다.

여주인공 심은경도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있다. 드라마의 원작인 일본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가 일본 내 클래식 열풍을 이끈 바 있어 '내일도…'가 국내에도 클래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내겐…'은 감성 멜로와 가요계 뒷이야기로 수목극 시청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 8회 만에 이룬 성과다. 음반 제작부터 스타 탄생까지 가수와 소속사의 무대 밖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려 젊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극 중 윤세나(정수정)가 천재 작곡가와(…)를 발휘하며 노래 '음악' '너 하나만'을 제작해 드라마와 현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수 김태우는 '내겐…' OST '너 하나만'을 부른 가수로서 드라마에도 특별 출연해 현실성을 높였다. '너 하나만'은 방송 직후 국내 음악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며 음악 드라마의 흥행력을 증명했다.

'모던파머'는 록 밴드가 귀농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드라마다. 이홍기, 곽동연, 어시언, 박민우로 구성된 4인조 밴드 엑소(엑설런트 소울스)가 주인공이다. 실제 이홍기는 그룹 FT아일랜드 보컬로 활동 중이어서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엑소는 화려한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록 정신이 충만한 밴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뮤직 드라마의 매력은 시청자의 눈과 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흥행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효진기자 sorth @metroseoul.co.kr

KBS2 새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 주원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정수정

SBS 새 주말극 '모던 파머' 이홍기

'무한도전' 400회 앞두고 방송사고

편집 실수에 제작진 공식 사과

400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무한도전'이 방송사고로 명성에 흠을 냈다.

11일 한글 특집으로 방송된 '무한도전'은 방송 말미에 편집상 문제로 방송사고가 났다. 한글 테스트를 받기 위해 정준하가 받아쓰기를 하던 도중 화면에는 지난주 방송된 '무한도전'의 '라디오스타' 방송 장면이 전파를 탔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이었으나 큰 지장 없이 방송이 진행됐다.

'무한도전'의 방송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진 노홍철의 받아쓰기 장면에서도 비슷한 방송사고가 일어났다. 또 남은 방송에서도 효과음이 삽입되지 않은 채 방송이 이어지는 등 방송사고가 잇따랐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제작진은 이날 트위터에 "방송 도중 편집상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무한도전'은 18일 400회 특집을 내보낸다. /정영훈기자 jyh@

11일 일어난 MBC '무한도전' 방송사고에 대해 제작진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방송 '무한도전' 트위터 캡처

퓨전사극 '삼총사' 줄 잇는 수출

미국·중국 이어 아시아·유럽 6개국 추가 판매

tvN 일요 드라마 '삼총사'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총사'를 제작하는 CJ E&M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된 데 이어 최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프랑스 등 기에 등 6개국에 추가로 판매됐다. 유럽의 고전과 한국 전통 사극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총사'는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까지 판매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CJ E&M은 "태국에는 한국 드라마 중 최고가로 판매가 됐다. 일본에서는 12월쯤 TV에 소개될 것"이라며 "'삼총사'가 해외판매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도 확정 단계 직전의 계약들이 많은 만큼 향후 더욱 괄목한 판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를 모티브로 한 퓨전사극으로 조선 인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액션 로맨스 활극이다. 인조의 장자이자 자칭 삼총사의 리더인 소현세자(이진욱 분), 그를 호위하는 포도청 풍류 무사 허승포(양동근 분), 여심을 흔드는 꽃미남 무사 안민서(정해인 분), 강원도 무인 출신의 열혈 초보 무관 박달향(정용화 분)이 조선과 명청 교체기의 혼란했던 중국을 오가며 펼치는 활약상을 담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계획된 시즌제'로, 총 36부작으로 구성돼 12개 에피소드를 모아 3개 시즌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김순호기자 sune@

해양 애니 '꼬마잠수함 올리' 개봉

무지개 해적단 '꼬마잠수함 올리'가 8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적'의 흥행 열풍을 이어간다.

해양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꼬마잠수함 올리'는 무지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한 꼬마 잠수함 올리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다.

'꼬마잠수함 올리'에 등장하는 해적은 무지개 보물을 바다 한가운데 숨겨놓은 전설의 존재들로 바다 세상에선 무지개 해적단으로 불린다. 주인공 올리는 노란색 외모가 눈에 띄는 잠수함 친구이며 따뜻하고 용감하다.

영화 '꼬마 잠수함 올리' 스틸컷

특히 영화는 기발한 소재로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해적단이 던진 보물 때문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설정과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모험, 해적 같은 요소들이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한 어린 관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꼬마잠수함 올리'는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에서 제작한 '카' '비행기' 제작 기획들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자동차, 비행기에 이어 잠수함 캐릭터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바다 속 동화같은 볼거리와 독특한 잠수함 친구 올리의 모험담을 그린 '꼬마잠수함 올리'는 오는 1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효진기자

서건창 vs 박병호 MVP 집안싸움

200안타·50홈런 대기록 달성 놓고 막판 경쟁 치열

기록의 사나이들이 2014 프로야구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집안싸움을 벌인다.

일찌감치 홈런왕을 예약해놓은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26·**사진 왼쪽**)와 같은 팀의 '안타 제조기' 서건창(25·오른쪽)이 한국 프로야구사에 남을 기록들을 눈앞에 두면서 MVP를 놓고 막판까지 예상할 수 없는 경쟁을 치른다.

앞서 2년 연속 MVP를 거머쥔 박병호는 올 시즌에는 11년 만의 50홈런 타자로 MVP에 도전한다. 박병호는 11일 49호 홈런을 쳐내며 2003년 이승엽(56개)과 심정수(53개) 이후 끊긴 50홈런에 1개만을 남겨뒀다. 4경기가 남아 있어 기록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 박병호는 116타점으로 1위에서 테임즈(120타점·NC다이노스)를 4개 차로 쫓고 있다.

서건창은 국내 프로야구 최초의 200안타 달성을 노린다. 꿈의 기록을 달성할 경우 MVP는 자연스럽게 서건창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건창은 11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치며 이종범(현 한화 이글스 코치)이 해태 시절인 1994년 달성한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196개)과 타이를 이뤘다. 4경기를 남겨둔 12일 현재 서건창은 안타(196개), 득점(129개), 타율(0.373)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다안타와 득점 타이틀은 거의 확정적이다.

서건창이 남은 4경기에서 경기당 1개의 안타만 쳐내도 200안타의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200안타는 162경기를 치르는 미국과 144경기를 치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기록이다. 한 시즌에 128경기만을 치르는 한국에서 200안타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으로 불린다.

집안싸움을 벌이는 선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염경엽 넥센 감독 역시 두 선수가 각각 50홈런과 200안타를 달성한다면 MVP는 서건창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홈런왕과 최다안타 타이틀 외에 얼마나 많은 공격 부문 타이틀을 추가하느냐도 변수로 작용해 MVP 경쟁은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이들 외에 또 다른 넥센 선수인 앤디 밴헤켄(35·19승)은 2007년 다니엘 리오스(22승) 이후 끊긴 20승 투수에 도전하며 MVP 경쟁에 뛰어든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슈틸리케호 정예멤버로 2연승 도전

14일 코스타리카전 선발 대폭 변화

성공적으로 출항한 슈틸리케호가 정예 멤버를 앞세워 2연승을 노린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와 경기한다. 10일 파라과이와의 데뷔전에서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으로도 2-0 승리를 거둔 슈틸리케 감독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는 주전급 선수들로 새롭게 진용을 꾸린다.

파라과이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이동국(전북)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역시 후반에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레버쿠젠)이 코스타리카전에서 선발로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이청용(볼턴)과 이명주(알아인)는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용의 중심축을 이룰 전망이다.

미드필드진에는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과 단짝인 한국영(카타르SC)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포백 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주호(마인츠)와 차두리(FC서울)가 좌·우 풀백으로 나서고 중앙에는 김영권(광저우)과 곽태휘(알힐랄)가 설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에는 파라과이전에서 맹활약한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대신 김승규(울산)가 맡을 예정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라과이와의 경기에 남태희(레퀴야), 조영철(카타르SC), 김민우(사간 도스) 등을 공격수로 내세웠다. 비주전으로 평가받는 이들은 그동안 벤치를 지키던 설움을 씻어냈고, 이들의 활약은 주전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또한 잠재적 비엔으로 피로가 쌓인 주전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체력을 비축함으로써 코스타리카전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10일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예상과 달리 후반 교체 투입된 주전 공격수 손흥민. /연합뉴스

김효주 KLPGA 4승 상금 10억 돌파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우승

김효주(19·롯데·**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12일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72·6741야드)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4언더파 284타로 이정민(22·비씨카드)과 함께 연장에 들어갔다.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파를 기록한 김효주는 두 번째 샷을 워터 해저드에 빠뜨린 이정민을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올 시즌 KLPGA 최다승인 4승째를 올린 김효주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억6000만원을 보태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또 6월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승부사 기질을 보이며 우승을 따냈다. 16번홀까지 이정민보다 2타를 뒤졌던 김효주는 17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이고 18번홀에서 1.5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해 결국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반면 이정민은 짧은 버디 퍼트를 여러 차례 놓치는가 하면 연장에서 티샷과 두 번째 샷을 연달아 러프와 워터 해저드에 빠뜨리며 무너졌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2일

■잠실

LG	000	000	010	1
두산	210	000	03X	6

[illegible]

■광주

삼성	000	124	100	8
KIA	000	001	102	4

[illegible]

■사직

한화	000	011	000	2
롯데	001	012	00X	4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2일

부산	2	1	제주
전북	1	0	울산
상주	1	0	서울

[illegible]

프로농구 전적 12일

KT	17	11	10	22	60
전자랜드	20	19	15	13	67
인삼공사	15	16	13	27	74
모비스	21	20	24	18	84
동부	14	23	11	6	54
오리온스	16	16	21	14	65
삼성	17	18	22	23	78
SK	18	19	28	28	93
LG	12	14	26	24	76
KCC	18	22	18	25	84